

2. 뜻을 키우다

동편 하늘에 러멍이 비끼기 시작했다.

어둠은 밤새 깃들었던 자리를 쉬이 내여주기 싫은 모양 느릿느릿 안개발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잇달아 거뭇한 성곽의 자태가 서서히 드러났다.

옛 평양성이었다.

천년강국으로 위용떨치던 모습이런듯 웅건한 그 자태는 여전하였다. 성벽중허리까지 덮여있는 이끼며 그우에 또 줄기를 쳐나간 이름모를 풀들, 더우기는 성가퀴구석마다에 잡초들이 자라고 날새들의 둥지까지 보이는것으로 보아 지금은 이곳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되어버렸음을 알수 있게 하고있다.

성터는 아직 단잠에서 깨어나지 않고있었다. 고요한 정적만이 흐를뿐...

바로 이때 뚜거덕뚜거덕... 새벽하늘을 깨치며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성벽웃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때아닌 인기척에 놀란듯 성벽우의 안개발이 설레설레 훑날리고있었다.

누구일가, 이 새벽에...

성벽우로 사람들의 형체가 하나둘 솟아올랐다.

희뻑히 밝아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말을 탄 사나이들의 모습이 우렷이 드러났다.

일행은 여섯이었다. 칼을 차거나 창을 꺾나든 차림들이었다. 이들은 지금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해가 막 솟아오르려는 시각이었다.

순간 맨앞에 서있던 말이 《오호호호!》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한길 솟구쳤다. 말우에 앉은 사내가 쩍싸게 말고삐를 찬것이였다. 울음소리와 함께 말은 성루로 올리달렸다. 다른 말들도 약속이나 한듯이 앞의 말을 뒤따랐다.

바로 그 시각에 동켄 하늘이 이글이글 타번지면서 빨건 해가 이마를 솟구었다. 순간에 하늘땅은 온통 한모양새로 빨겁게 물들어버렸다.

그러자 맨앞의 사내가 또다시 말고삐를 쳤다.

《오호호호!》

말은 다시한번 솟구쳐오르며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뒤따라 다른 말들도 겨꿈내기로 솟구쳐올랐다.

사내들은 하늘끝에라도 오르려는듯 한번 또 한번 련속해서 솟구치기를 거듭했다. 그러면서 목청껏 웨쳤다.

《오—평양성아!》

《아—고구려땅아!》

이들의 웨침소리는 하늘가 멀리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격양된 이들의 심중을 담은듯 고동색노을에 감싸인 안개발은 기세차게 성벽을 휘감아올라 붉게 타는 하늘가로 흘날려갔다.

해는 어느새 다 솟아올랐다.

아침해빛에 성곽아래 흐르는 패강과 그너머 안개우로 점점이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이 눈부시게 빛을 뿌렸다.

이제는 사내들의 자태도 완전히 드러났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구에 애젊은 나이들이였다.

맨앞의 사내는 해처럼 둥근 이마에 광채가 흐르는 눈이며 보기 좋게 솟구쳐오른 코날이며 위엄있게 네모진 턱이며 부드럽고 여유가 넘친 불이며가 한눈에도 총명함과 지혜로움, 넓은 도량과 깊은 인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얼굴이였다. 그는 송악의 젊은 성주 왕건이였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내들은 다름아닌 유금필, 박술희, 능산이들이였다. 이들 말고 또 두사람, 그들은 왕건의 4촌동생 왕식렴과 왕

신이였다.

이들이 이곳 평양성에, 그것도 이른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시각을 맞추어올라와 해마중을 하고있는 까닭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 고있었다. 옛 고구려 도읍성터우에서 솟는 해를 마중하며 가슴속깊 이에 묻어둔 고구려재건의 포부를 맘껏 터쳐보고있는것을...

성벽아래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다.

수염발을 보기 좋게 드리운 세 로인이 무슨 말인가 중얼중얼 주고 받으며 성터로 올라오고있었다.

셋중에 두 로인은 비단옷차림이였다. 머리에 두른 비단두건우엔 꿩 깃까지 꽂고있었는데 식자개나 있음직해보였다.

두 로인은 왕건의 사부들이였다. 한 로인은 변씨성을 가졌고 다른 로인은 마씨성을 가졌다. 변씨로인은 고구려 이전의 부여국에서 왕실 의례를 맡아본 귀족의 후손이라 일컫는 사람이고 마씨로인은 그보다 썩 거슬러올라가서 단군왕대의 팔가중의 하나인 마가벼슬을 지낸 조 상의 후손이라 자랑하는 사람이였다. 이들이 바로 이전엔 왕건의 아 버지 룡건의 모사들이였고 지금은 왕건을 가르치는 사부의 중임을 맡 고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런데 이쪽의 세번째 로인은 차림새부터가 두 로인과는 판판 달 랐다. 흙배옷으로 적당히 몸을 가린 우에 사슴가죽으로 지은 등거리 같은것을 걸쳤는데 허리엔 굵은 흙바오래기를 허리끈삼아 둘러감았고 누런 털이 그대로 붙은 노루가죽으로 행전삼아 정갱이를 둘러치였다. 로인의 두다리가 범의 앞발통 같은것은 물론이요 머리를 질끈 동인 가죽두건마저도 범의 대가리털가죽을 그대로 손질해서 두른것이여서 그 모양이 흡사 범의 형국 그대로였다. 하지만 로인의 얼굴생김새는 그리 무서워보이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냥을 반 업으로 살아가는터이라 차림새는 우악스러워보이나 느슨한 눈빛의 얼 굴은 마음편한 느낌을 먼저 주고있다.

이 범로인은 이곳 평양성터에서 대를 이어오는 토배기였다.

《우리 제자분을 그렇게 보신단 말씀이지요?》

마씨성의 사부로인이 범의 모양을 하고있는 평양성토배기로인에게 묻는 말이었다.

셋은 이미 많은 말을 주고받은것 같았다.

《곱씹어 말하는데 세상을 건질 인품과 도량이 엇보이오이다. 기대 되는 인물이 분명하오이다.》

《고맙소이다. 우리 소임이 바로 그것인지라 로인장의 그 말씀이 정말이지 힘이 되오이다.》

마, 변 두 사부로인이 연송 머리를 숙여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초면에 낫을 익히자마자 다시는 상면이 어려우리라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오이까?》

《...》

《예로부터 천자를 알아본이는 인츰 자취를 감추는게 상례라 하였거니와 로인장께서도 그 말을 따르려고 하시는것은 아니온지...》

변사부가 떠보듯 묻자 범로인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나는 누구처럼 천자까지는 가려볼줄 모르오이다. 그저 그가 류달리 이 평양성터를 자주 찾아오는지라 익히 눈여겨보아온터에 믿음이 가서 하는 말이오이다. 고구려를 그리는 마음으로 온몸을 꿰이는 모습이어서 남다른 기대를 가져보는것이오이다. 말은 바른대로 지금 같은 란세에 고구려같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겨레의 기강을 바로세워줄 인물이 나와주기를 고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소이까?》

《그러할진대 로인장께서 어찌하여...》

《나이때문에 그러는거지요. 내 나이 어느덧 예순을 넘겼소이다. 이 평양성의 새 주인을 만나는 날까지 기다려낼것 같지 못하오이다.》

《우리 제자분에게 기대를 가지시면서도 그러시오이까?》

《시일이 걸릴것이라 생각되어 그러는것이오이다. 그 제자분이 지금 당장에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옵고 아직은 송악린근과 그 이남이라고 짐작되오이다. 그대들도 그 제자분을 따라야 할것이므로 내 하는 말이지요.》

《하오면 우리와 송악에 가시오이다. 우리가 힘자라는것 로인장을

모시겠소이다.》

《아니요. 고맙소만 난 여기 평양성이 좋소이다. 태를 묻은 이곳에 뼈도 묻어야지요. 죽어서도 여기서 평양성의 새 주인을 맞으면 되는거지요.》

《말씀의 뜻을 알겠소이다. 아무쪼록 명을 이어주시오이다.》

《바라는바가 같으니 우린 죽어서도 다시 만날것이오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범로인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대들도 래년초쯤 가서는 그 제자분을 더이상 돌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소이다. 제자분의 생일이나 쇠고서 말이오이다.》

《로인께서 우리 제자분의 생일까지 알고계시오이까?》

《알고있었소이다. 제자분은 이미 다 자랐소이다. 래년에는 스무살이 되지 않소이까? 나이만으로도 성년이 되는데다가 그는 이미 장한 뜻을 세운 뒤오이다. 도선대사는 벌써 그의 자를 약천 즉 하늘밑을 굽어본다는 뜻으로 지었소이다.》

《약천! …》

《도선대사가! …》

두 사부로인은 저마끔 부르짖었다.

《로인장께서 도선대사를 아시오이까?!》

《알지요. 이곳에 가끔 오군 하여 자별한 사이가 되었소이다. 금년봄에도 오셨었는데… 이젠 평양성도 마지막으로 보는것 같다며 작별인사를 했소이다. 이제는 세상밖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려다면서 할바를 다하였으니 조용히 승하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명도 다되었다 하면서…》

범로인은 말끝을 흐리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도 우리 제자분이 그만하면 문무를 갖추었다고 보고 이제는 울밖에 내놓아도 되리라 장담하였소이다. 실지로 제자분은 지금 송악의 새 성주이오이다.》

두 사부로인은 연신 고개를 주억거렸다.

《도선 그 사람은 저 송악의 젊은 성주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가 세상을 바로잡는 인물이 되리라 장담하였다고 하더이다. 그가 천자가 되리라 예언한거지요.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쩐지 나도 그 말을 믿고싶소이다. 저것 보시오. 얼마나 씩씩하고 믿음이 가는 기상들이오이까.》

범로인은 발길을 멈추고서 왕건이네들이 서있는 성루쪽을 가리켰다. 왕건일행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성루우에 서서 아침해발아래 눈부시게 펼쳐진 성아래쪽 경치를 부감하고있었다.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이까?》

마사부가 여쭙자 범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들은 지금 금시 깃을 차고 날아오르려는중이오이다. 방해되는것만 될뿐이지요. 그럼 전 이만하고 물러가겠소이다.》

범로인은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성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미처 인사말을 고를 사이도 없이 마, 변 두 사부는 범로인이 스며들어간 숲속을 한참이나 멀거니 바라보고 섰다가 비로소 정신을 수습하며 마주보았다.

《저 로인이 도선대사와도 면식이 있는것을 몰랐소그려.》

《이제는 깨도가 되오.》

둘은 다시한번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저희들도 이제는 할바를 다하였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고있는것이였다. 두 사부가 바라온것이 바로 그것이었던것이다. 고구려재건의 중심인물을 키워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이들의 파제는 끝나는것이였다.

마사부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랬다. 그는 단군성왕을 받든 선대조상을 둔것을 가문의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단군과 더불어 조상의 첫 나라를 세운 선대의 뼈가 묻힌 그 땅, 패장기슭의 박달산자락에서 지금까지 대물림을 하여왔다. 철이 들어 역사를 알게 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단군성왕의 혼이 잠든 성스러운 고구려땅이 그 좁스런 신라와 당나라한테 짓밟히고만 사실에 얼마나

통탄해마지 않았던가. 그랬기에 신라조정에서 인재를 운운하며 더러운 손을 뻗쳐왔을 때에도 그는 너희네 신라것들한테 엉치도 돌리지 않는다 하고 단마디로 거절하고는 계속 두문불출하여왔다.

송악의 룡건이 출중하기 이를데없다는 소문을 듣고있던 참에 그가 허위단심 찾아와 하도 곡진히 간청하므로 무료로 세월을 보내는것도 아쉬워 나선것이었는데 일이 좀 되는가싶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일은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들의 사부소임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안았다. 이제는 대물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놓치면 안되는 일이 분명한지라 변사부와 손을 맞잡고 그 일에 전념하여오던 어느날 룡건은 변사부와 나란히 마사부를 어떤 초췌한 모양새의 스님앞에 대령시켜 선을 보이였다. 4년전의 일이었다.

사람을 볼 때 외형을, 정확히는 얼굴생김새를 기본으로 보는 마사부는 마주앉은 스님이 도무지 눈에 차지 않아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자를 도선이라고 부르는 이 스님은 말없이 뚫어질듯 두사람에게 눈길을 주고있다가 스르르 눈을 감으며 턱을 끄덕끄덕하고마는것이 아닌가. 몇년전인가 신라임금의 권유에 못이겨 조정안에 들어가 식객노릇을 하다 그마저 싫어져 뿌리치고 나왔던지... 지금은 백제산 옥룡사(도선의 호는 옥룡이다.)에 거처하고있다는 등의 소리를 건성으로 들으며 마사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아무됐거나 신라족속의 한가닥일진대(도선은 자기를 옛 백제땅령 암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조상이 서라벌 김씨라는것을 숨기지 않았었다.) 네까짓것이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세우려는 우리의 응지를 알면 얼마나 알고 진심을 바치면 얼마나 바치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마사부의 속집작은 대번에 깨어져나갔다.

도선이 아주 어릴적에 월유산 화엄사에서 불교에 입문하여 불경을 도통하고 그후에는 무주 동리산에서 혜철이란 불명을 가진 대사밀에 제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불교의 새로운 종파를 내오고 그자신이 천문과 지리풍속을 꿰뚫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판별해내는 묘리까지

터득하였다 하는데까지는 그런대로 잘은 둘러친다 하고 흘려듣고있었는데 이게 무어나, 그가 자칭 지었다는 《도참지리설》을 강론하면서 《송악명당기》요, 《평양성명당기》요 하는데서 이제 세상을 건질 인물은 꼭 옛 고구려땅에서 나고 그 인물은 평양성에 의거하여야만 흥하리라는 예언으로 말을 맺는 대목에 와서는 저도 모르게 이마를 치고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신라족속이면 어떠랴. 바로 고구려땅에서 혼탁이 된 이즈음의 란세를 바로잡을 인물이 나리라는 예언을 하고있는데야.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야 단군겨레의 래세가 굳건히 이어진다고 굳게 믿고있는 저들의 속마음을, 아니 당대의 민심을 다름아닌 이 도선이 학문으로 뒤받침해주고있지 않는가.

마사부도 변사부도 비로소 룡건을 리해했다. 그리고 도선을 스승으로 섬기기로 언약했다. 한편으로 둘은 새로운 눈으로 룡건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가 과연 세상을 건질 성인군자가 됨즉 한가 하는 눈더듬을 해보는것이였다. 그런데 룡건은 마, 변 두 사부와 어깨동잡인데다 머리칼이 희속희속해지는 로인줄에 들어서고있었다. 그가 천리 밖이요 만리 밖이요 하고 땅을 주름잡고 바다건너 당나라까지 나드느것을 봐서는 대인이 분명하나 날라오는것은 글보다 물건이 우선이요, 지켜보느라면 장사외에 다른 재미는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세월은 류수라 하였거니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이를 먹어가며 송악땅에서 룡건의 그늘아래 세상만사가 다되리라고 생각한것이 잘된 일갈지 았다 하는 생각이 들무렵에 이르러 룡건이 부탁하기를 제 아들 왕건을 가르쳐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아하, 그러니 룡건 너는 아니 되겠고 아들에게나 기대를 가져보자는 속심이냐 하는 생각에 적지아니 탕개가 풀리는감이 없지 았았으나 그것도 바이 허술히 여길 일은 아니여서 한번 받들기로 마음을 세웠으면 죽을 때까지 지키고 보는게 사람의 도리이다 생각되어 지금껏 성의껏 일해왔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왕건을 위시한 젊은 무사

들을 따라 이 평양성터에 와서 평양성토배기로인으로부터 왕건이야말로 세상을 건질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변, 마 두 사부의 기쁨이 어떠했으랴. 왕건의 부친 룡건의 속내를 이제는 말짱히 이해한것은 물론이고 이제 더는 왕건을 거들지 않아도 되는바 이미 깃을 털고 일어난 왕건은 거침없이 창공에 날아올랐으니 이제 더는 여한이 없는이들이었다.

다음해인 897년 정월 열사흘날, 왕건이 스무살이 되는 생일날 저녁에 마, 변 두 사부는 왕건앞에 허리를 굽히고 하직인사를 하였다.

왕건이 송악에 함께 있자고 하였으나 들은 평양성에서 기다리겠노라 하고 나란히 떠나갔다. 마사부는 변사부까지 데리고 박달산 심산유곡 단군의 뼈가 묻혀있는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있었다.

항간에 왕건의 앞날을 예언하여 퍼뜨린 유명한 스님 도선도 왕건이 스물한살이 되는 해인 898년 겨울 백계산 옥룡사에서 조용히 세상을 하직하였다.

아직은 왕건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기 전이였고 이들의 예언이 맞아 떨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때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렸다.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세상을 건질 뛰어난 인물을 애타게 바라던 세월이었던것이다.

인걸이 얼마나 중요한것인지야 더 말해 무엇하랴.

하나의 작은 촌락에도 좌상이 온전해야 룡리와 풍속이 유지되고 생계가 무난히 이어질진대 하물며 나라야 더 말해 무엇하랴. 두말할것없이 임금의 뜻바르고 신하들이 대발라야 흥하고 번영하는 법이다.

천년강국으로 이름떨치던 고구려가 순간에 망한것도 당대의 군신들이 부실한탓이었다. 인재의 부족이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말해도 그르다 할 사람이 없을것이었다. 대바르고 결단성있는 애국명장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몽성왕의 대를 탈없이 지켜온 고구려였다.

허나 연개소문이 죽은 뒤 조정의 중임을 맡은 그의 아들들이 뒤를 옹바르게 잇지 못하였다. 권력싸움에만 몰두하면서 시기질투하던 나머지 당나라에 손을 들고 넘어가 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몸을 적신 역적까지 났으니...

나라를 지켜야 할 겹이 형제간의 다툼질에 동강나고 조상대대 물려오던 귀중한 땅이 찢기우고 두쪽으로 갈라져 아래쪽은 신라에 먹히우는 치욕을 당하고만것이였다.

다행히도 옷쪽땅에 간난신고끝에 발해가 새롭게 일어서 겨레의 명맥은 이어졌다. 허나 이백년을 승승장구하던 발해도 이즈음에 와선 그 강기를 잃고있었다.

들려오는 소리 또한 흥흥한것뿐이였다.

거란족이 번성하여 발해지경까지 내려왔다는것이다. 이들이 당장은 당나라를 친다고 하나 열에 아홉은 발해를 먼저 칠것이 뻔하였다. 지금의 발해형세로 보아서는 거란에 손을 들지 않으리란 담보도 없다. 그만큼 이 거란족속들이 세력을 팽창히 불구였던것이다. 자칫하면 고구려를 이은 겨레의 명맥이 끊길수 있는 시점에 이른것이였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판국이였다.

그런데도 부패한 신라는 아무런 마련도 없었다. 하긴 제 집 기둥 버티기에도 힘든 처지인데야...

그러니 겨레를 일으켜세울 방도는 정녕 없단 말인가. 겨레를 이끌 인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단군 이래 수수천년을 번영해온 이 땅, 이 하늘아래 겨레를 하나로 이끌어올릴 영결이 이다지도 나지지 않는단 말인가.

밥숟가락을 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대했다. 하늘에 빌고 땅에 빌며 일일천추로 고대했다.

이 땅, 이 겨레를 일으켜줄 인걸을 내여주소이다. 찢기여 신음하는 이 땅의 아픔을 가져주고 하나로 합쳐줄 위인을 내려주소이다.

오직 이 하나의 소원만이 강토에 서리고 하늘에 서려있었다.

어디서 주먹개나 휘두르는 장수가 하나 나도 그곳으로 와 쫓리

였다.

저 건너마을에 먹물개나 문힌 식객이 하나 나타나도 우르르 몰려가 떠받들며 후날을 의탁했다.

이같은 민심이 어찌 평양성이나 송악에만 한한것이라.

실은 이때 벌써 저아래 북원쪽에서도, 쇠두레쪽에서도, 무주(일명 무진주라고도 함. 전라남도 광주)쪽에서도 저마다 인물들이 나서서 무리를 짓고 제나름의 기치를 펴고있었다.

그쪽에 비하면 송악의 왕진은 아직 입에서 젖내가 가지지 않은 애승이었다.

적어도 쇠두레에 있는 궁예가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출중은 해도 먹은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는것이였다. 허나 앞일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였다. ...

쇠두레 성곽안의 북쪽면 안침진 곳에 날아갈듯 네 귀가 치켜오른 청기와집 남향을 면한 대청마루우에 서툰하고도 두셋은 더 먹어보이는 체소한 중 하나가 조는듯 두눈을 감고서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가려이고 불교명은 보종이였다. 궁예가 이전에 세달사라는 절에서 범교라는 대사로부터 선종이란 불교명을 받을 때 궁예를 일생 따르라는 부탁을 담아서 한낱한시에 지어준 이름이였다.

(범교가 궁예에게 달아준 선종이란 불명에는 착한 마음으로 불문에 복종하라는 뜻이 담겨있었다. 그의 몸에서 가끔 가다 드러나보이는 사나운 성격을 우려하여 지어준 이름이였다.)

가려는 궁예가 세달사에 찾아갈 때 함께 동무해간 사이였다. 아니, 그보다 썩 이전에 녁월산골의 어느 한 마을에서 궁예가 홀어머니슬하를 떠나기 전부터 그의 유일한 동무가 되어준 사이였다.

궁예가 어릴적에 마을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남의 집 자는 애기 코침주기, 호박넝쿨 잘라놓기, 오줌누는 계집애 머리채 뒤로 당겨주기, 이웃집아낙네 물동이 깨쳐주기 등 하여튼간에 못된짓은 골라가며 하는것을 늘쌍 보아오면서 그때마다 가려는 진저리를 치며 머리

를 돌려버렸었다.

병신심보 고운데 없다더니 궁예가 꼭 그랬었다. 하기에 가려는 궁예가 멀찌감치에 얼핏 나타만 나도 줄행랑을 놓았었다. 자기 같은건 팽이치듯 휘갈겨놓을상싶어서였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생각으로 늘 궁예를 멀리하였는데 어느날이던가 그만에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그와 찰떡에 꿀발리듯 맞붙어버리는 사이가 되고말았다. 그날 동네애들과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벌어진 싸움끝에 궁예의 도움을 받고서부터였다. 마을애들이 가려 자기를 보고 룡발이라고 놀려주면서(가려는 남달리 발가락이 여섯이었다.) 룡발이는 혜염도 잘 칠터이지 하며 머리를 눌러 물을 먹이는데 화가 나서 맞손질을 해보았으나 어림도 없었다. 원체가 작고 약한 체질이라 못매를 맞고 물까지 잔뜩 먹어 정신이 몽롱해지는 때인데 별안간 머리우에서 괴성이 울리고 썸버덩, 툭탁소리가 들리더니 건듯 제 몸이 누구에겐가 들려오르는것이 아닌가.

누굴가, 날 살려주는이가...

창황중에 눈을 치뜨고 보니 이게 누구냐, 자기가 지금까지 뱀보다 더 소름끼쳐하던 바로 그 건너집아들 애꾸눈이었다.

《병신도 사람이다. 사람을 죽이려들어? ...》

그의 그 말 한마디에 동네애들은 기겁을 하며 엎드렸다. 주동이 되었던 아이는 코피가 량자한 얼굴을 아예 자갈바닥에 박고있었다.

《다시한번 그랬단 봐라. 꼬투리건 알이건 싹 까치우고말테다. 명심하라! 룡발을 놀려주는건 나를 놀려주는것이다.》

동네애들이 달아난 뒤 가려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애꾸형님, 이 룡발을 동생으로 삼아줘요.》

그 순간 눈앞엔 별찌가 번쩍, 한쪽귀엔 벼락치는 소리가 딱!

가려는 다시한번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질렀다.

귀뺨이 얼얼한중에 궁예의 목소리가 하늘 멀리에선듯 들려왔다.

《애꾸니 룡발이니... 우린 병신이 아니다!》

《알겠어요, 형님! ...》

《동생아! …》

《형님! …》

둘은 제각기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서로 그리안았다.

동병상련이라 했던가, 둘은 타고난 불행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가려는 궁예와 나란히 강변에 앉아 하늘에 별이 돋을 때까지 있었다가 제 어머니들이 찾아나와서야 자리를 일었다.

허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각기 제 집으로 이끌려간 두 사내애들이 어머니들앞에서 분을 터뜨린것이다.

왜 병신자식을 낳아 이런 맘고생을 시키느냐, 애초에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도 없을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게 무에 그리 큰 흠이라고 그러느냐. 버선속에 가리워지고마는것을 가지고… 건너집 애는 천냥중에 팔백냥 나가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언제 한번 기가 죽어있는걸 보았냐?》

가려는 어머니의 그 말에 울음을 그쳤다. 그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그래, 정말이지 그가 불쌍해. … 동정심이 북받쳤다.

《너무 상심말아. 너는 지체가 있는분의 자식이다.》

《예?! …》

가려는 무슨 소린가 하여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언제나 묵묵부답이던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것이였다.

《이제는 너도 알 때가 된가부다. 너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식자가 여간 아닌분이였다. 조정에서 문서를 엮어바치던 대단한 선비였느니라. 나는 산속의 아녀자라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너의 아버지는 뭔가 조정에 대고 바른소리를 한것이 노여움을 사서 이곳으로 파직되어 와계셨지. 그때 시중들던 나를 잠시 품어주었느니라. 그래서 네가 태어났다. 네 아버지는 병으로 인츰 돌아가셨지만 너는 비천한 출신이 아니니 마음을 크게 먹고 일어서야 한다. 내 말뜻을 알겠느냐?》

《! …》

가려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앞날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래, 기가 죽어 살 리유가 무어람! 그렇게 식자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나도 한번 일떠서보는거다.)

《어머니, 나 이제부터 글을 배우게 해줘요.》

《그래라. 글을 배우게 하고말고.》

그 순간 가려는 궁예를 생각했다.

《어머니, 건너집 외눈이형님과 함께 공부하게 해줘요.》

《오냐, 이밤으로 가서 그 집 어미와 의논을 하자꾸나.》

가려는 어머니와 함께 그예 자리를 일었다.

그 시각 궁예는 제 어머니로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솔직히 말하건대 왕자님은 서라벌임금의 자손이오이다.》

《왕자님?! 임금의 자손?! …》

《그렇소이다. 서라벌 경문왕의 서자이오이다. 낳아준 친어머니는 경문왕의 후실 설씨로소이다.》

《?! …》

궁예는 흠칫 몸을 떨었다.

위잉- 하고 벌우는 소리가 귀전을 스쳐가더니 뒤이어 쿵- 하고 한몽둥이 치는 소리가 머리속을 울렸다. 그 다음은 가슴속에서 쿵당 쿵당 방아질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궁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내가... 서라벌임금의 서자라고?! …)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모멸감이 온몸을 엄습해왔다.

《그러면... 어머니는요?》

궁예는 아연해진 눈길을 들어 간신히 물었다.

《나는 왕자님의 유모였소이다.》

어머니는 차분히 앉아 그간의 만단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궁예의 아버지는 경문왕(이름은 김응렴) 즉 신라43대 회강왕의 손자였다고 한다.

응렴은 그 당시 화랑들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로 떠받들렸었는데 어느날 임금인 현안왕(신라47대왕)이 한번 만나보자 하여 불리워 갔다가 대번에 그의 눈에 들어버렸다는것이였다. 현안왕은 자기의 두 딸중 하나를 고르라 하고는 부마로 택하겠다고 선포했다. 느닷없이 닥친 일이라 당황한중에 며칠간 말미를 달라 하고 집에 돌아와 사실대로 이야기하니 부모친척모두가 찬성하면서 둘째공주가 절색이니 그를 택하라 이르는것이였다. 그런데 이미전에 보아온 설씨라는 려염집 처녀가 있었던 응렴은 쉽사리 마음을 정할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망설이는 응렴에게 그의 스승이 찾아와 조언을 주었다. 임금의 뜻이니 따라야 할뿐더러 그럴바에는 맏공주에게 장가를 가야 좋으리라는것이였다. 스승의 조언이라 중히 받아들여 왕의 사위가 되였다. 그런데 잔치를 치른지 석달후에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 누워 버렸다. 그는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사위 응렴이 나이는 어려도(당시 응렴은 열여섯살이였다.) 지혜롭고 덕을 갖추었으니 임금으로 정한다고 언명했다. 그리하여 응렴은 스무살도 되기 전에 신라의 사직을 떠맡고 48대왕으로 룡상에 오르게 되였다.

애젊은 나이에 룡상에 오르고보니 세상의 모든것이 다 내것이요, 내 마음먹어 아니 되는 일이 없는것이 바로 임금인듯싶었다. 그는 왕비로는 성이 차지 않아 그보다 인물이 더 고운 왕비의 동생 둘째공주를 두번째 왕비로 맞아들였고 이듬해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설씨처녀까지 후궁으로 맞아들여 뒤대궐에 거처하게 하였다.

젊은 혈기가 내키는대로 색을 밝힌것이 끝내 화단이 되어 두 왕후와 후궁 설씨사이에 시앗싸움이 터지고야말았다. 설씨가 아들을 낳자 만왕후는 제가 낳은 아들이 태자책봉에서 밀려날것을 우려해 설씨의 아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미게 되였다.

그 일이 경문왕이 제일로 믿고 의지해오는 늙은 일관에게 맡겨졌다. 일관은 경문왕에게 상주하기를 설씨가 낳은 왕자는 날 때부터 뽀족한 이가 있는데다 눈과 이마에 살기가 서린것이 반드시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일 기상이라고 주어섬겼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다니? ... 그럼 나를 죽이리란 말이 아닌가?! ...)
일관의 말을 믿는데 버릇된 경문왕은 그 말을 끝이듣고 온몸을 떨었다.

(내가 죽어 신라의 천년사직이 흔들리느니 차라리 그 화단을 제거해 왕실의 안녕을 기하리로다.)

생각을 굴리던 경문왕은 경술하게도 피덩이자식을 없애버리라고 령을 내려버렸다.

왕명을 받은 놈이 그날 밤으로 피덩이 애기왕자를 안아다가 런못가 다락우에서 물우로 내던져버렸는데 때마침 그밑에서 런밥을 따고 있던 유모가 떨어지는 아기를 받아안았다.

자기의 불행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애기왕자가 제가 내던져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유모가 간신히 손을 쓸수 있었던 것이다.

받아안고보니 애기는 기절하였는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정신없이 애기를 흔들기만 하다가 비로소 생각이 들어 뒤대궐로 달음쳐가보니 설씨는 벌써 누군가가 숨을 끊어놓았었다.

모든것을 알아차린 유모는 기겁해서 뛰쳐나왔다. 자기도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란걸 깨달았던것이다.

(이밤으로 어디로든 도망쳐야 산다.)

유모는 밤새 줄달음을 놓았다. 도성밖을 벗어나 북으로 난 길을 따라 정신없이 뛰고뛰었다. 제가 난 고향으로 갈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러면 부모친척들까지 화를 입을것이 명백한지라 방향을 돌려버렸다.

나도 나지만 죄없는 이 피덩이까지 죽게 할순 없다. 내 젖을 먹여 키우던 왕자이니 내가 끝까지 돌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난 뒤에 지금껏 온갖 고생을 달게 여기며 왕자와 더불어 살아온것이였다. 죄스러운것이 있다면 다락에서 떨어지는 왕자를 받아들 때 손가락에 찔리워 한눈을 멀게 한것이였다. ...

전후사연을 다 털어놓고나자 유모는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었다.

《왕자님! 중한 옥체를 귀히 돌보지 못하고 천륜을 어긴 큰 죄를

지었으니 이년은 죽어 마땅하오이다. 죽여주소서! …》

유모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였다.

《무슨 소릴 하는것이오니까, 어머니! …》

궁예는 목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말을 믿을수가 없소이다. 믿을수 없소이다. …》

《아니오이다, 왕자님.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이젠 죄다 사실이 옵니다.》

《사실이라니 하는 말이오이다. 제 피줄을 타고난 자식을 죽이라 하는 그런 아버를 아버라 부를수 있는것이오이까? 왕비들인 그네들도 자식을 낳는 녀인일진대 남의 자식이라 해서 그렇게도 모질게 죽이려 들수 있는것이오이까? 이들을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가 말이오이다.》

궁예는 통곡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뿔어져라 방바닥만 내리쏘아보던 그의 한 눈이 번쩍 들리었다. 새과랑게 얼어붙은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눈물 자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나는 이밤으로 집을 나가렵니다. 기어코 살아서 저 서라벌족속들을 씨도 남지 않게 짓이겨버리렵니다. 그전엔 어머니를 찾아 오지 않겠소이다. 그럼 전…》

궁예는 일어섰다. 그는 이전날의 동네애꾸러기가 아니였다.

《이밤으로 떠난단 말씀이오이까?》

유모는 급작스레 변해버린 궁예를 아연해서 바라만 보고있었다.

그러거나말거나 궁예는 초신감발을 하는듯마는듯 《횡-》 하고 마루를 건너뛰여 마당에 내려섰다. 그러다가 무언가 인기척을 느낀 듯 획 몸을 돌렸다. 문지방옆에 선채 부들부들 떨고있는 가려네 모자를 본것이였다.

《형님! …》

가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다 들었냐? …》

《예, 아니… 아무것도…》

가려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얼버무렸다. 가려도, 그의 어머니도 방금 엇들은 그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것이어서 몸이 굳어져있었다.

《아무렇거나... 너 마침 왔다.》

궁예는 휘익- 소리를 내며 가려에게 다가오더니 무작정 그의 손목을 비틀어잡았다.

《이제부터 우린 한몸이다. 나와 함께 이길로 떠나자!》

《어머니가 형님과 함께 글공부를...》

《왜 글공부만 하겠느냐. 이왕이면 무예도 닦자꾸나. 량쪽에 날개를 다 달잔 말이다. 우리 산 사람이 되자, 좋으냐?》

《좋아요.》

《그럼 떠나자.》

궁예는 두 어머니의 의향 같은건 물을념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가려를... 부탁하옵니다.》

가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하직인사를 올려야 하잖겠어요? 형님!》

《뒤돌아보지 말아!》

궁예는 가려의 손목을 나꿔채며 삼작문을 걷어찼다.

《왕자님! 마음을 너무 모질게 먹지 마옵소서! 어디 가든 인정을 귀히 여기소서! 부디 신의를 잃지 마소서! ...》

유모는 흐느끼며 부르짖었다.

《?! ...》

궁예는 흠칠 몸을 한번 떨었을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달았다. 그뒤로 가려가 허둥지둥 달음질을 쳤다.

둘은 온밤 숲을 헤치고 고개를 넘으며 북두칠성을 방향삼아 북으로 내달았다. 날이 썰무렵 백리는 실히 넘게 걸음을 한 뒤에 마주친 처음 보는 절앞에서 둘은 주저없이 대문을 두드렸다.

가려는 이렇게 궁예와 더불어 세달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불문에 몸을 잠그었다. 천자문을 깨치고 불경을 외우며 무예를 익혔다.

이곳에서 가려는 궁예의 성장을 지켜볼수 있었다. 몇년안팎에 사서

삼경을 무불통달하고 십년이 지나고난 뒤에 글에서는 무예에서는 그를 따를자가 없게 되었으니 스승인 대사 범교마저도 손털고 나왔어 대견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짙은 얼굴을 하고서 훈계 같은건 일체 집어치운채 이제는 날개를 펴도 되겠소 하고 조심히 권고하였다.

그즈음에 와서 궁예의 미모는 놀라웁게 달라졌다. 기골은 장대하면서도 윤이 도는 옥फल이요, 얼굴은 칠색무지개인데 눈이 하나 뿐인것조차 본래는 인간세상에 그것이 진짜 이목구비였던듯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 역시 왕가의 혈통을 이은이가 다르구나. 때를 보아 세상을 건질이가 틀림없으렸다.

가려는 궁예에게 훌쩍 반하고말았다. 그와 더불어 탄세를 한번 바로잡아보는수다, 이런 생각으로 날을 이어왔다.

속세의 무지렁이들을 어떤 수로 주위에 끌어모으며 한무리로 꺾어차고 단숨에 대사를 도모할수 있을것인가. 가려는 자기가 어느결에 궁예의 모사가 되어 세상을 한번 휘저어볼 생각까지 하게 된것이 놀라웁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 꿈이 싫지 않았다.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부풀어만 갔다. 그래서 바로 그날 범교대사가 궁예보고 이제는 세상밖을 나가보아 후회가 없으리라 일러줄 때 제 먼저 머리를 끄덕였고 궁예와 나란히 세달사를 떠났었다.

그후로 궁예를 따라서 개산의 농민군두령 기훤을 찾아갔다가 뛰쳐나오고 다음해에 복원의 농민군두령 량길을 찾아가서야 비로소 장수축에 든 궁예를 보좌할수 있었다.

《보종계선 좌선중이시오?》

누군가의 말소리에 가려는 흠칫 상념에서 깨어났다.

날씨가 하도 좋아 잠시잠간 졸며말며 마음편히 머리십겹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보고있는중인데 웬 놈이 달콤한 내 기분을 깨는것이냐. 메밀눈이 돼가지고 앞을 노려보니 환선길이라는 자칭 궁예의 제일부장이라 으시대는 곱게 보질 않는 그 작자가 대청마루에 올라서

고있는 것이었다.

(오라질 놈! 고작해서 재간이란게 칼 휘두르는 것밖에 없는 놈이 뭐라구? 좌선중인가구? 하도 궁예를 따라다니더니 이제 좌선을 다 알고···)

코웃음이 나는 것을 참으며 가려는 적당히 응수했다.

《날씨가 하 좋더라니···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궁예어른께서 여기 와계시나 해서 왔소.》

《지금이 사시 초엽이라 참선중이 아니신지···》

《하오면 이후에 와야겠군. ...》

(저놈은 언제 봐야 말버릇이 못되단 말이야.)

증문밖으로 사라지는 환선길의 뒤통수를 쏘아보며 가려는 혀를 찾다. 다른 장수들은 자기가 궁예와 너나들이로 통하는 것을 알아차려서인지 몸가짐도 조심하고 언행도 단정한데 똑 하나 저놈만은 자기앞에서 배도 더 내밀고 말투도 반말이 레사라 밋살스럽기 그지없었다.

그건 그렇고, 가만··· 저것이 또 우봉엘 다녀왔나?

생각이 이에 미치자 가려는 또 한번 코웃음을 쳤다. 우봉령주의 딸을 본 날부터 마른침을 삼켜가며 궁예를 부추기는 꼴이 여간 가관이 아니어서였다.

어젠가 그젠가, 아니 사흘전 같았다. 혜식은 웃음을 지으며 궁예 앞에 나타나서 저것이 하던 말이 생각키웠다.

《선종어른께선 이제 금방이라도 대왕으로 등극하셔야 할터인데 당장에 침전에서 보필할 왕후가 책봉되지 않고있으니··· 이 일은 시급히 바로잡지 아니할수 없는 일이므로 내 이길로 우봉에 다시 다녀오려 하오이다.》

(이놈아, 너색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데 우리 중들인줄 네가 모른다 말이나?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까무라칠 지경인데 저것은 때없이 찾아들어 색타령이람···)

가려가 뺨이 치솟아 한마디 하려는데 궁예가 씩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바람도 쇠일겸 다녀오기는 하나··· 가고오는 길에 송악에 들러 궁

성축조나 잘되어가는지 알아보라.》

환선길이 떠나간 뒤에도 가려는 잡친 기분을 쉬이 돌리지 못하였다.

《미륵정토》를 꿈꾸는 우리에게 불법을 파계하라 한사코 부추기는 저놈을 어떻게 다스려놓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중에 가려에게는 문득 환선길을 처음 만나던 때 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언제던가. 그래, 우리가 기훤이페에서 떨어져나와 량길을 찾아갔을 때 량길의 수하장수로 자처하던 저것이 우리 형님에게 먼저 내기를 걸었었지. 자기의 협도(일곱자길이에 네근정도 나가는 무기, 칼날의 길이는 석자인데 끝이 조금 뒤로 젖혀지고 칼등에 상모를 달았다.)와 궁예의 예도(칼날의 길이는 석자 반정도 되고 날이 가늘고 끝이 뾰족한 칼)가 붙어봐서 제가 이기면 궁예의 까까머리를 베어버리고 제가 지면 부하가 될수 있다고 했던가. 그래서 붙어본것이 해가 세기장 지날 때까지 끝이 나지 않다가 환선길 저놈의 턱수염이 몽텅 잘리워나가야 손을 들었었지. 그것도 량길이 그 대목에 이르러 중지시켜서 이지 그냥이였더라면 저게 영낙없이 목떨어진 귀신이 되고말았을것이다. 그 주제를 해가지고도 지금도 궁예다음엔 무조건 자기노라고 노상 으시대고있는것이다.

가려는 처음부터 량길의 수하에 있다가 궁예에게 돌아선 환선길이 나 리훈암이보다 홍유나 배현경, 복지겸이처럼 각기 제스스로 무은 부대를 가지고있으면서 량길과는 복속이 아니라 연합의 방식으로 어울렸다가 궁예를 따라나선 장수들에게 더 믿음이 갔다. 그들은 불국정토건, 미륵대제국이건 그런것은 알바 아니라며 그저 고구려같은 나라를 일으키려는 뜻만 세웠다면 죽어 백골이 진토되도 여한없이 따르겠노라 맹약했던것이다. 조건을 전제로 한 연합이였고 뜻을 명백히 한 연합이였다.

사람이란 뜻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맹목적인 복종은 실속이 없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려는 환선길이네보다 홍유네들을 더 믿게 되는것이였다.

가려의 생각은 틀린것이 아니였다. 자기를 의성사람이라고 하는 홍

유나 서라벌가까이에서 살았다는 배현경이나 면천이 고향이라고 하는 복지겸이나 다 그들은 저들의 선대는 본시 고구려사람이라고 하나같이 말하였다. 고구려를 잊을수 없고 고구려를 재건하는것은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가문의 뜻이자 자신들의 인생목적이라고 내놓고 말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궁예에게 모여온것은 바로 대대로 이어오는 가문의 소원, 고구려재건의 뜻을 궁예가 실현하련다고 하였기때문이었다. 그래서 궁예를 따르고있는것이였다.

궁예가 고구려재건의 기치를 들도록 부추긴것이 바로 가려였다. 궁예는 가려와 함께 세상을 주름잡을 포부를 익히면서 백성들을 불러 일으킬 명분을 놓고 적지 않게 고심했다.

최약해질대로 최약해져 조락의 길로 달음치는 신라에 대해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고구려같은 강대국을 일으켜세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디건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재건의 기치를 들었더니 아닐세라 사람들이 저저마다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기도 시기려니와 장소도 잘 골랐었다. 마침 이곳이 녁월이북이라 지금은 신라관할이지만 옛날엔 대부분이 고구려땅이었던것이다. 기훤이나 량길이가 그만한 세력으로 와서 이렇듯 분명한 뜻을 세워 백성들을 규합하지 못하는지 이상했다. 그것이 바로 그네들의 약점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어쨌든 가려는 신심을 가지고 실재없이 뛰고뛰었다.

한해전 이맘때 송악의 이전 성주 룡건과 만났을 때 그가 곱씹어 다짐을 받아간것도 바로 고구려재건의 기치였다. 룡건은 고구려재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낄것이 없다며 자기 본터까지, 아니 아들까지 궁예에게 미련없이 바치였었다.

그때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가려는 지금도 현훈증이 날 정도였다. 하늘이 돕지 않고서야 그렇듯 막강한 인력과 재력에 권력을 지닌 룡건이 제발로 찾아올수 있었으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만하면 첫걸음은 잘 뻘셈이였다. 대세의 흐름을 제때에 타고 면 바로 뜻을 올린것이였다. 지금형세로 나간다면 세상을 걸어주는것은 잠간이요, 멀지 않아 반드시 천하를 굽어보게 될것이였다.

가려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은채 다시금 상념의 세계로 빠져들어 갔다.

...

우중충한 산자락들에 둘러막혀있어 퍼그나 안침져보이는 널직한 골짜기에 어둠이 슬깃슬깃 내려앉고있었다. 골안의 이곳저곳에 락엽속에 버섯 돛듯 점점이 널려있는 초막들에도 어둠발은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중에 류달리 덩지가 큰 초막 하나가 유묘하게 보이였다. 다른 초막들보다 내굴이 세관게 뿔어나오는것도 표가 나지만 초막앞에 너른한 공지가 닦아져있는데다 한쪽에 대여섯필의 말들이 주련이 매여져있는 것이 어둠속에서도 푹푹히 보인때문이었다.

초막안의 고틀대에선 광술불이 아닌 노루기름등잔불이 너울거리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다 내 불찰이야. 애초에 그 애꾸놈을 믿지 말았어야 하는것을...》

몸집이 우람한 장년의 텃석부리 하나가 들었던 옹배기를 내리치며 부르짖었다.

《너무 상심마소이다. 아무때나 그 버릇을 떼주면 되는것이지요.》
이러며 다른 털부승이가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초막안에서는 여럿의 장정들이 둘러앉아서 화로불에 노루고기점을 굴려서는 술사발과 번갈아가며 입안으로 넣고있었다.

무언가 께씹한 일을 당하여 그 분을 삭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표정들이고 다른편으론 그 분풀이를 반드시 하리라 버르는 자세들이였다.

옹배기를 내리치며 남달리 분해하는 털부승이가 바로 이곳 복원일대 농민군두령인 량길이었다.

의지가지할데 없어 믿고 찾아왔으니 미천한 몸 줌 건사해주시오 하며 머리를 조아릴 때 그만 깜빡 속아서 그 애꾸눈 중대가리를 받아 준것이 큰 실책이노라고 연신 자책하는 량길이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량길은 신의를 제일로 쳤고 배신을 제일로 증오했다. 까짓놈 제 하나 변심했다면 그런대로 넘어갈수도 있

으런만 궁예 그놈은 량길이가 자기가 지금껏 애써 키워온 끼끗한 장수 들까지 절반이 썩 넘게 후려차고 달아난것이다. 코밑을 닦아주며 자 래운 환선길이나 리혼암이 같은것들이 자기를 버린것을 생각하면 자 다가도 벌떡 일어서는 량길이었다.

그보다 량길이가 더 아쉬해하는것은 홍유, 복지겸, 배현경이들이었다.

홍유는 제천근방의 느릅재에서 만났고 복지겸은 려주 당고개에서, 배현경은 제천 서쪽 박달재에서 만났다. 신통히도 이들 셋은 날자는 서로 달라도 똑같이 고개길에서 마주쳐 인연을 맺었었다. 고을관청의 탐관오리들을 치러 가는 길에서였다. 홍유부대와 느릅재에서 만난것 도 둘이 다 제천고을을 치러 가는 길이여서 우연히 만나 손을 잡았 고 복지겸부대와는 려주고을을 치러 가는 길에 당고개에서 만났다. 배현경이네 부대와는 중원경(충주)고을을 치러 가는 길에 또 길이 같 아 함께 거사를 치른 뒤 손을 잡았다. 이들이 합류한탓에 량길은 중 원경과 복원, 서원경(청주), 괴양(괴산), 제천, 함양 등지의 10여개가 넘는 고을들을 일거에 차지할수 있었다.

량길은 이즈음에 와서 그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져나간 리유가 무엇 일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군 하였다. 그들이 자기와 한 맹약을 버리 고 하필이면 그 애꾸눈이 궁예를 따라가다니... 궁예가 자기보다 식 자가 있는것을 보고 반했을까, 아니면 내가 인정이 모자라 그랬을까 등등으로 생각해보았으나 어느것 하나 알맞는 리유는 아닌것 같았다.

하다면 내가 궁예보다 무엇이 모자라 그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을까. 나는 본시부터 마음이 푸근한데다 남을 깔보는것따위는 애당초 싫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까지 심보가 고약하다거나 속이 좁다는 소 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도중에 우리에게 끼여든 궁예보다는 그래 도 시작부터 부대를 이끌어온 이 량길의 공이 더 큰것을 그들이 과 연 모른단 말인가? 백성들의 등을 글쟁이질하는 신라관리들을 나만 큼 증오하고 나만큼 많이 목 버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관청을 친 뒤에 남보다 재물을 더 가진게 있었더냐, 따져보면 그런것도 없다. 열이 생기면 열을, 백이 생기면 백을 부하들과 똑같이 나누었다. 누

구든 내 수하에 든 사람이면 다 똑같이 대해주었고 나처럼 믿었다. 그래서 다들 나를 칭찬하며 감심해하지 않았던가. 관청놈들 꼴 보지 않고 굽신거릴 일 없으니 이제사 사람 사는것 같다며 이구동성 눈물을 머금지 않았던가. 그런데 즐지에 나와 등을 지다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보아도 량길은 그 원인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래 맹손동생은 고덕재너머에서 군사를 얼마나 모았소?》

량길이 이발을 쭈시며 묻자 곰가죽등거리를 걸친 장수가 제격 대답하였다.

《이백은 실히 될것ियो.》

《검바우 너는?》

《방치고개너머에선 오십밖에 거두지 못하였소이다. 하지만 싸리재 등너머에선 백을 모았소.》

검바우로 불리운 장수가 뜨직뜨직 대답했다.

《그쪽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구나.》

량길은 한숨을 내쉬었다.

《금년안으로 정한 이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한다. 궁예가 명주의 순식이네를 굴복시키고 얻은게 천에 가깝고 쇠두레에 가서 얻은 군사만도 오백을 넘는다고 한다. 궁예에게 가붙은 송악군사도 오백이라던지 천이라던지… 좌우간 작당을 잘하고 덤벼야지 오히려 코를 빼울수가 있다. 다들 좀더 분발하자.》

《알겠소이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자.》

량길이 하품을 하며 일어서려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그중 젊어보이는 장수 하나가 영겨주춤하며 한마디 던지었다.

《저… 우리도 어디 가서 모사를 한명 청해와야 하지 않겠소 이까?》

《모사를? …》

《그렇소이다.》

《나에겐 그대들이 다 모산데 새삼스레 모사는 무슨 모사요?》

량길은 도리머리질을 했다.

《우리 같은 까막눈들이야 이 마음뿐이지 어디 두령님을 보필할 재목이 되오이까? 그래도 모사라면 글을 알고 그 무슨 나라 같은걸 세울 료량까지는 할줄 아는 사람이여야 하옵지 않겠소이까.》

《나라를 세울 료량?! 하하하...》

량길은 허구픈 웃음을 터뜨리다가 인차 정색해졌다.

《나라라는데 누구나 다 세우는건줄 아는가. 아무나 쉽사리 세울 수 있는게 나라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 누가 나라를 세운다던가?》

《궁예를 따라다니는 그 보종이란 중놈이 그러는줄 아오이다.》

《가려 그놈이? ... 하하하. 그러니까 가려가 궁예의 나라를 세운다는건가? 하하하, 이 사람 점박이! 자네라면 흑여 몰라도 그 애꾸가 나라라니 당치않은 점괘일세. 두눈이 또렷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외눈깔 그놈이 그런 룡꿈을 꾸단 말인가!》

《외눈이 더 밝을수도 있는 법이오이다.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그렇다면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될 놈이다. 지금 있는 나라는 어찌하고 또 나라타령이란 말이냐?》

량길은 얼굴이 시뻘개서 소리쳤다.

《하오면... 두령님은 무엇을 위해 지금껏...》

《나는 조정은 증오하지만 나라는 나무람 안한다! 내 지금껏 탐관오리들을 치고 땅을 넓히는것은 조정이 정신을 차리고 어진 임금을 앉히기를 바라서야. 농사군을 존대하는 어진 정사만 펴는 때에 가선 내 이 두령자리를 미련없이 내놓겠네. 지금 우리가 차지한 고을들은 각기 동생들이 성주가 돼서 돌보도록 조정과 약조만 하면 될것이고.》

《농사군을 존대해줄 그런 임금이 나지리라 생각하오이까?》

《지금처럼 뒤바꿈이 되는 꼴을 봐서는 아닌 말로 기다려봄즉도 하지 않을가?》

《힘들것이오이다. 저 썩어빠진 서라벌족속들속에서 언제 그런...》

《우리가 서라벌까지 세력을 뻗쳐간 뒤에 우리 손으로 플라앉힐수도 있는거지. 그리고도 미타하면 조정의 대신자린 자네들이 앉아 지

키면 될것 아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서 우리 맘에 들 썸 머리를 끄덕이고 그렇지 않을 썸 가로 젓기만 하란 말이야, 하하하...》

량길은 제김에 만족한듯 또 한번 시원하게 웃어제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은 힘을 회복해서 저 궁예란 놈을 우선 때려치워야 하는거야. 그놈이 감히 나라까지 세우려든다면 그거야말로 내버려둘수 없는 일이다. 이전처럼 또 세썸박으로 갈라져서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게 할순 없단 말이야.》

《궁예란 놈은 조만간에 놀러놓는다치더라도 그런 놈이 아래켼에 또 하나 나타난것은 어찌하겠소이까?》

점박이장수는 여전히 고개를 기웃거렸다.

《양무(강진)인가 령암인가 하는데서 비장노릇 하였다는 그 견훤이란 사람 말인가?》

《예.》

《참, 그 사람은 옛적 백제를 잊지 못해한다면서?!》

《그렇다고 들었소이다.》

《그 사람도 참 답답하이. 행차후 나발이라고 지나간 옛적 나라를 생각해선 뭘 한다는건가. 나도 소문을 좀 들었는데 그는 백제왕가의 후손도 아니라던데... 룡상을 꿈꿀 처지도 못되는 주제에 이상도 하군. 분풀이를 하고싶으면 나와 손잡고 서라벌조정을 갈아뎡 생각을 해야지. 참, 어이없는 일도 다 있군.》

이러며 량길은 입을 꾹꾹 다시였다.

량길은 견훤을 자기 같은 농군출신으로 알고있었다. 사시절 부지런히 몸을 놀려서 제가 지은 낱알로 배불리며 사는 재미면 다시 그 이상 더 바랄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조정관속들이 하도 농군들의 등껍질을 벗기는지라 이켼 정말 참지 못하겠구나 하고 들고일어선것이 자기도 이상할 정도로 무리가 늘어 사방 수백리를 거두는 대두령이 된 후에도 그는 늘 농사군시절을 그리워하였다. 자기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제 어깨에 실리는 책임감의 무게로 하여 생각도 이전보다는 더 넓고 더 깊이 하

느라 밤잠을 설칠 때가 오죽 많았으랴. 그통에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는 어지간히 미뤄이 텃다고 자부하는 량길이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량길에게는 견훤이 이전 백제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가소롭게만 여겨졌다. 그러니 그가 조금만 더 있으면 필경 백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소리를 할수 있으렷다. 하다면 웃쪽에서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궁예는 또 어떤 나라를 꿈꾸고있는걸가.

《견훤은 그렇다치고 그 궁예란 놈이 세우려한다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가?》

량길이 누구에게라 없이 묻자 점박이장수가 기다렸다는듯 또 입을 열었다.

《후고구려국이라는걸로 알고있소이다.》

《후고구려국?! … 궁예가 고구려국의 왕가후손이라도 되는가?》

《그런것 같지는 않사오이다. 그는 본시 녁월 아래사람인걸로 알려져있소이다.》

《왕가후손도 아닌것이 그 무슨 명분으로 감히 후고구려국을 운운한다는건가?》

량길은 궁예의 속내를 도무지 알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궁예는 고구려를 바라고 견훤은 백제를 바란다 그 말이렷다?! …》 이렇게 묻고는 제 먼저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되겠다. 넓지 않은 이 땅에 다 지나간 고구려는 뭐고 백제는 또 뭐란 말이냐. 저 웃쪽에 발해가 있고 이 아래쪽에 신라가 있어 이 땅이 두동강난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또 네동강이 나게 해? 재미가 들어 어느 놈이 또 일어나 다섯동강 내고 여섯동강 내고… 끝없이 동강만 내면 나라라는것이 어느 하나 꼴모양 잡히게 남아있을테냐? 그렇지들 않으냐?》

《듣고보니 그 말씀에 일리가 있소이다.》

량길의 부하들은 필경 그럴수도 있을상싶어 머리를 주억거렸다.

《서둘러야겠다. 금년안으로 대오확보를 끝내야겠어. 그리고 래년 봄부턴 우리도 북소리를 울려야겠다. 궁예 그놈에게 정식으로 싸움

을 걸어 버릇을 가르친 뒤에 죽이든 살리든 결말을 보고는 아래컨
으로 말을 몰아 견훤을 다잡아야겠다. 그러되 견훤에게는 먼저 서신
을 띄우자, 새로 나라를 세울 생각은 거두고 손잡고 신라조정을 정
리하자고.》

《그게 좋겠소이다.》

량길의 측근들은 수궁했다.

그러나 점박이만은 아무 말도 없었다. 이후에 그는 간다온다 소
리없이 량길의 슬하를 떠나버렸다. 송악으로 간 것이었다. 거기서 보
통군졸로 말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궁예가 밀려난 뒤 왕건의 눈에 들
어 병부령관리로까지 발탁되었다. 그가 어느때 죽었는지는 기록에 없
으나 전장에 나가다가 급병으로 순직했다는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져
오고있다.

우봉땅의 금교역참(지금의 금천읍)이 있던 자리 조금 못미처에 있
는 점박이고개가 바로 그가 죽은 곳이라고 전해오고있다.

그후의 사연은 어찌되었든 그 당시 량길은 또 한번 배신을 당한
분함을 누르는데 적잖은 신고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굳힌 마음을 돌려먹지 않고 내밀었다. 모든 수
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오를 늘이는데만 전념했다. 궁예를 눌러
놓겠다는 하나의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898년 무오년 정초였다. 무주성안에서는 무슨 구경거리가 생겼는지
술한 사람들이 모여 시끌땡땡 소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기치창검이 줄레줄레 늘어서있는 관창담장너머 안뜨락에 인총이 촘
촘히 들어차가지고 무언가를 구경하느라 여념들이 없었다.

자세히 보면 구경거리란게 다른것이 아니고 오라를 지은 죄인 하
나를 기둥우에 매달고 이리 빙글, 저리 빙글 돌리면서 채찍을 안기
는 으스스한 광경이었다.

웅성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를 맞는 죄인이라는게 몇년전
만 해도 이 고을의 우두머리던 무주고을 성주라는 것이다. 그때 이 서

라벌족속은 견훤의 반란군에 의해 무주가 함락당할 때 겨우 목숨을 건져 탈출하는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그 모양을 해가지고 서라벌로 찾아간댔자 목을 내놓아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진주를 되찾겠다고 으벼르면서 잔여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주변산악지대에서 지금껏 버티며 재기를 노리고있던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한달가량 들이친 견훤의 토벌에 끝내 견디지 못하고 잡혀 보다싶이 개목 매달리는 몰살스러운 꼴을 하고서 못매를 맞고있는 판이었다.

《들리는 소리론 백제를 다시 일으킨다 하였다더니 정말 용을 쓰는구만.》

《그런가보오. 저 성주란게 투항하라고 통첩을 했는데도 버티다가 저렇게 목매달렸다고.》

《까짓놈, 잘되었지. 서라벌것들이란 저렇게 목을 매고 치는수라네.》

《그래도 제 임금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걸 보오. 머리가 다수그러지요.》

《온전한 임금이라면 또 몰라도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만든 그 잘난 치마꼬리를 무에 곱다고 버터준단 말이요?》

《아따, 이 사람 보게. 치마두른 임금이 물러간지가 언제게. 지금은 현강왕의 서자인 김요라구 먼저번 녀왕의 조카벌 되는 사람이 룡상에 앉았다네.》

《저기선 서라벌 왕가내속을 잘도 아는군. 그럼 저 물러간 녀왕은 누구의 자손이었나?》

《진성녀왕은 경문왕 김응림의 딸이었지. 오빠인 정강왕 김황의 뒤를 이어 올라가지구 십년은 그럭저럭 버티었지만 나라는 더 엉망이 되였다네.》

《지금임금은 웬만히 구실을 한다는건가?》

《구실을 하면 저 풀이겠나? 보게나, 거꾸로 매달린것을... 여기는 이젠 신라땅이 아니라네. 아래쪽 양무에서부터 웃쪽 완산주(전주)까지 여기는 이젠 견훤의 세상이란 말이네.》

이러니저러니 주고받는 말들을 대수 추려보면 지금 이쪽 서남해린 근지역은 마지막으로 버티던 이곳 무주가 깨어진것과 함께 이제는 완전한 견훤의 세상이 되었다는 소리였다.

《그렇소. 이젠 견훤의 세상이요!》

웬 체소한 사나이 하나가 이렇게 되받아 내뱉으며 활활 대청마루 위로 걸어올라갔다.

저건 웬 놈팽이야 하고 옆에 있던 몇사람이 얼떠름해서 바라보는 사이에 체소한 사나이는 벌써 대청마루에 올라섰다. 그는 칼든 군사들에게 무어라 이르고는 씩하니 문지방사이로 스며들어갔다.

체소한 사나이가 사라지자마자 군사 서넛이 우르르 마당으로 내리달더니 그때까지 매달고 치던 성주의 목을 가차없이 쳐버리고말았다.

약!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마당가운데를 째며 스쳐갔다. 뒤이어 트락안팎은 또다시 죽가마 끓듯 와글거렸다.

방으로 들어온 사나이는 문틈으로 피곳 밖을 한번 내다보고는 더 이상 그에는 관심이 없는듯 비단보료에 주저앉으며 차종지에 손을 뻗쳤다. 뚜껑을 열어젖히고 김이 물물 오르는 차종지를 입가에 가져다대는 사나이의 얼굴에 달콤한 웃음이 남실거리었다. 서른남짓 되어보이는 팽팽한 얼굴인데 그지없이 만족하다는듯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채머리를 떠는터에 술적은 염소수염이 난들난들 호들갑을 떨었다.

이 사내는 능환이라고 견훤이 어렸을 때 이웃마을에 살던 소꿉동무이고 지금은 견훤이 첫손가락에 꼽아주는 그의 모사였다.

황소같이 우람한 견훤의 체구에 비하면 반푼밖에 안되는 몸인데도 기죽은 구석은 찾아볼래야 볼수 없을뿐더러 가느다란 실눈엔 오히려 야심이 번뜩이는것이 첫눈에도 벌써 레사내기가 아닌것이 알리었다.

그렇수밖에 없는것이 능환은 상주 가은현의 이름없는 산골에서 견훤과 비슷한 해에 나서자라면서 힘으로는 견훤을 당하지 못하였지만 머리를 쓰는데서는 견훤보다 늘 앞서군 했던것이다.

둘은 다같이 자기 아버지들로부터 신라에 의해 몰락한 백제의 한

을 언제든 꼭 풀어야 한다는 말을 밥먹듯 들으며 자랐고 도처에서 수풀처럼 솟구치는 반란군의 출몰을 보며 어린 가슴에 재기의 맹약을 쌓아왔었다.

견훤이 서라벌 수비군사로 뽑히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준것도 능환이었다. 장부는 군사를 알아야 하고 칼권이 세상도 쥐는 때인만큼 성공의 지름길이 열렸을 때 주저없이 내달으라고 당부했었다. 이후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꼭 찾으라고, 자기는 그때까지 두문불출하고 오직 병서에만 파묻혀있겠다면서…

그 다음 일은 능환이 바라는데로 번져갔다. 아마도 견훤은 운이 좋은가보았다.

6년전인 892년이였다. 진성여왕이 손수 나서서 견훤에게 어지를 내리기를 저 멀리 서남쪽 끝 강진땅에 반란군이 출몰하였는데 진압하러 간 장수마다 련전련패요, 반란군은 이제 서라벌로 쳐올것이라 하니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견훤장수가 나서서 부디 막아 조정의 안존을 기하게 해주오 하며 눈물절반, 사정절반으로 비장벼슬에 옥룡어주까지 내리는지라 짐짓 분부대로 하겠노라 약속하고 내달려간 끝에 견훤은 반란군을 보기 좋게 진압하였다. 실은 칼질 몇번으로 규합해버리고만것이였다.

그후 진성여왕이 몹시 기뻐하며 올라오라 이르는것을 알은체 안하고 사방으로 무리를 모은것이 오천에 이르렀을 때 견훤은 드디어 능환을 불러들여 조언을 구했다.

견훤의 련전련승하는 소식을 들으며 그가 언제 부르겠는가 애가 타서 기다리고있던 능환은 한달음에 달려와 견훤의 머리가 돼주었고 그사이 품들여 꾸며온 구상을 펼치였다.

지금 당장 완산주를 차지하고 본거지를 꾸려야 한다, 미구에 이곳은 새로이 일어서는 후백제의 도성이 될것이다.

나라를 세우자면 민심을 모아야 한다, 민심을 모으려면 기치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치는 무엇이여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것 없이 백제의 재건이다. …

견훤은 모든것을 능환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쟁기를 휘둘러 땅을 넓히는 일을 하겠으니 뒤거둠은 능환이 네가 해라.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라.》

《씩은 신라를 등진 민심이라 그걸 모으는 일쯤은 땅짚고 헤엄치기인데요. 칼 들고 몸을 내대야 하는 형님 일이 더 힘드실것ियो.》

능환은 견훤을 더 걱정했다. 그도 그럴것이 신라조정이 언제까지나 저렇게 죽은 지네모양 꼼짝않고 참고만 있을는지 단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렴 신라가 다 죽을수가 있을까. 수백년을 자랑해오는 화랑인지 뭔지 하는 저들나름의 인재육성제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많은 화랑도들이 백제를 다시 일으키겠다 욱욕하는 이쪽의 반란군을 곱게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것이다. 언제든 구름처럼 밀려와서 뼈도 추리지 못하게 짓이겨놓을는지 어이 알랴. 능환은 때때로 갈마드는 이런 위구심으로 마음 한구석이 늘 졸려있었다.

하지만 견훤은 배포가 유해서 중흥무진을 계속했다.

언젠가 견훤은 찾아온 량길의 사절을 기꺼이 맞이하고 제가 직접 답서를 써서 되돌려보낸적이 있었다.

저기에는 이렇게 썼다.

《그대가 나와 손잡자 함에 쌍수들어 환영하면서 신라서면도통지 휘 병마제치지절도독 전무공 등 주군사 행 전주자사 겸 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군 개국공의 이름으로(견훤은 이 시기 스스로 온갖 명칭의 벼슬이름을 다 건너차고 기세를 올렸었다.) 그대에게 비장벼슬을 하사하니 부대를 합쳐가지고 신라조정을 복수하자.》

견훤의 답신을 받아본 량길은 허구픈 웃음을 짓고말았다. 그리고는 이런 내용의 회답서를 보냈다.

《이 량길이 나이도 나이려니와 그대같이 어벌 큰 인물과는 한술밥을 나눠먹기가 송구하므로 고쳐생각하고 정히 거절하는바이다.》

그것을 본 견훤은 코웃음치며 머리를 가로흔들며 능환에게 말했다.

《우리 그릇에 담길 물이 아니다. 내버려둬. 그는 앞으로 망하고 말아. 내 짐작컨대 궁예란 놈이 량길을 배반하여 그 세력을 없애버

릴거야.》

《그렇가요?》

능환이 기연가미연가 가늠이 가지 않아 기웃거리자 견훤은 자신있게 단언하였다.

《신라종실에 기대를 거는 꼴이 케가 틀린게 아닌가. 그는 대세의 흐름은 봤으나 세운 뜻이 가벼워 아니 된다.》

《! …》

능환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견훤이 바로 보았던것이다. …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아도 완산주의 민심이 신라조정외의 복구가 아닐진대 북원쪽 민심이라고 다를것이 없다. 민심이 외면해버린 신라조정을 그냥 바라보고있는것자체가 민심을 또 한번 외면한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량길에겐 전도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량길이 궁예와 싸워이기지 못하리라 예언한 견훤을 능환은 새삼스럽게 생각하고있었다. 한편으로 능환은 미구에 궁예와 대치하게 되리라는 예감이 불쑥 들어 견훤에게 얼굴을 돌렸다.

《견훤형님! 형님이 땅을 넓히는게 급선무라 하신 말씀이 골백번 지당하오이다. 이제 궁예가 세우려는 후고구려와 우리가 세우게 될 후백제가 서로 대치되는 형세가 조성될것인즉은…》

《분발해야 한다. 병서에도 있지 않느냐. 선손을 쓰는자가 이긴다고… 서라벌쪽으로는 쇠두레쪽으로는 한치라도 먼저 차지하고 볼판이야.》

《알아들었소이다, 형님! 그네들은 고구려를, 우리는 백제를! 어디 누가 먼저 세우나 겨루어봅시다요.》

능환은 입술을 옥물고 일어났었다.

(량길을 포섭하는건 시간낭비다. 그는 궁예와 싸우다 쓰러지리라. 그사이 우린 힘을 키워야 한다. 궁예세력을 누를 힘을! …)

금년 한해는 차지한 땅을 다져놓고봐야 한다, 고을 성주들을 알쭉히 우리 심복들로 채워놓아야 한다, 한편으로 군사를 징발해서 그

수를 늘여야 한다, 그 다음해엔 다시한번 동정복벌! 그렇다, 바지끈 풀고앉아 차나 마시고있을 때가 아니다.

능환은 들었던 차종지를 획 방바닥에 깨버렸다. 벌떡 일어나서 허리매끼를 조이는 그의 눈에 야심찬 독기가 서리발을 쳤다.

누군가가 말했었다. 세상만물은 제나름의 모양새를 가지고있을뿐더러 존재하는 방식도 제나름으로 각각이고 사람도 이와 다를바없어서 서로의 생김새가 판판 다른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속내도 각기 제나름이라고.

생김새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야 서로 같을수도 있는거지 매모조리 다 제뿔뿔이로 제나름의 생각만 할수는 없는것이지만 실은 간혹 가다 그런 사람이 영 없는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도 각각, 생각도 각각이라는 말이 있는것인지...

명주땅의 령주인 순식이란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궁예에게 복종을 언약하고서도 나는 그런것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나왔았기때문이었다.

894년, 그러니까 4년전 이맘때쯤이었다.

궁예란 애꾸눈이 군사를 달고 이곳 명주땅의 지경인 바로 이 대관령 고개마루에 나타나서 순식이 자기더러 무작정 항복하라고 올리메였다. 그때 순식은 이제 어디서 굴러온 흰바지 개똥싸개냐, 버릇 한번 가르쳐줘야겠고나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나왔다가 뜻밖의 정황에 굳어지고말았었다.

떠돌이중이 되어 집을 나간지 삼년 하고도 여섯달이 지난 부친인 허월스님이 무리에 끼묻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궁예와 싸우지 말고 그에게 항복하는게 좋으리라 하였기때문이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질 요구라 차라리 바위돌을 들이받고 죽고나 말가 하다가 부친의 말은 법이라는 인륜도덕도 있는데다 도대체 무슨 쪼간에서 그런 까무러칠 요구를 하는지 알고나 죽자 하는 생각에 리유를 물었더니 우선 항복부터 하고보라고 사정절반,

강압절반이었다.

할수없이 부친의 말을 따르고볼셈으로 항복인지 하는 죽기만 못한 짓을 그예 저지르고말았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궁예가 돌아간 뒤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싶게 짝 잊고 나왔아서 이전처럼 여전히 제 내키는대로 살아가고있는 순식이였다. 항복을 하였으면 그 무슨 조공인지 진상인지 하는따위의 아부하는짓에 어지간히 품을 넣어야 할터인데 순식은 궁예쪽에 대고 하다못해 하품이라도 한번 하는것을 여적 본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그쯤하면 누구든 이 사람은 확실히 제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만 하였다.

사실을 말하면 그날 허월스님이 만류하지만 앓았어도 궁예의 가까머리는 당장에 목사발이 되었을터였다.

궁예는 대관령고개가 명주고을의 첫 관문이자 전방경계초소인것까지는 알고 접어들었지만 고개좌우 량쪽벼랑우에 집채만큼 큰 바위들을 쉼개는 더 넘을만큼씩 가려놓아서 한번 슬쩍 다치기만 하여도 날벼락치듯 내리떨어지는 돌탕에 짓이겨져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만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것도 모르고서 궁예는 순식의 항복 아닌 《항복》에 흐뭇해서 돌아갔다. 물론 명주고을 성안까지는 들어가보았고 룡송한 대접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궁예는 순식이 여전히 고을의 주인이라는것을 인정한것은 물론이고 투항이 아니라 순식이 제스스로 련합을 요구한것을 궁예가 받아들였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운 《항복》을 받아가지고 간것이였다.

내속은 어찌되었든 순식은 세상에 사내로 태어나 눈뜨고는 도저히 못할짓을 하였다고 두고두고 후회했다. 지금은 궁예란 사람에게 기운이 뻗쳐있으니 그와 서뿔리 맞서지 않는게 상책이요, 당장은 그와 이웃하여 어울림이 좋으리라 하는 부친의 말에 복종한것이나 그건 정말이지 삭여내기 힘든짓이 틀림없었다.

그까짓 돌탕은 말고라도 일대일로 붙어봐도 그따위 증놈 하나 제끼지 못할 내가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순식의 머리속을 휘젓

고있었다. 어디서 돌맹이 하나 굴러오듯 난데없이 이마뺨 한번 내민
놈을 칼질 한번 안해보고 항복이라니 이런 빨빠진짓이 어디 있담. …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분한 생각을 늘 품고있는 순식이였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보면 그의 이러한 심중도 십분 리해가
될것이였다.

순식은 퍼그나 오래전인 785년에 37대왕인 선덕왕의 뒤를 이어 일
시 왕이 되였다가 38대 원성왕이 즉위하면서 밀려나 이곳 명주땅에
내려온 명주군왕 김주원의 후손이였다.

조상인 김주원이 무슨 까닭으로 왕위에 올랐다가 밀려났는지 구체
적인 내막은 전해듣지 못하였다. 같은 아버의 배다른 형제사이에 뒤
바뀐것이고보면 분명 두 어미쪽켄들이 서로 다툼질을 하다가 주원
의쪽이 힘이 딸려 밀려난 꼴이라 부실한 조상의 래력을 부디 시시콜
콜히 전해내릴 까닭이 없는것이였다. 하지만 미안쩍은감도 없지 않
았던지 원성왕은 자기 형인 김주원에게 명주군왕이라는 칭호를 내리
고 명주와 그 일대 10여개 성을 독자적으로 통치하도록 하였다. 조정
의 어느 대신도 명주군왕에게 이래라저래라 훈시할수 없게 했고 조
세나 공물따위도 일체 없게끔 규정했었다. 일종의 소국군주의 특권
을 부여한것이였다.

김주원은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서라벌과는 담을 쌓고 제나
름으로 소왕행세를 하며 살아왔으며 그 지위는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세습되어오고있었다.

아버지대에 와서 웬 일인지는 모르나 순식의 부친인 허월은 10여년
전부터 불교에 정신을 쏟더니 삼년전엔 명주군왕자리를 아예 만이인
순식이 자기에게 넘겨주고 홀 집을 나가버리였다.

그때부터 순식은 명실공히 이곳 명주의 유일한 소왕이 되어있었다.
서라벌조정이 죽을 쓰든말든 내 알바 아니다 하고 그저 명주 하나만
을 다스리며 태평세월을 누려왔다. 그렇다고 궁녀들의 치마폭이나 뒤
지고 앉아있는 그런 지린내나는 소인은 결코 아닌 순식이였다.

궁녀소리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실지로 명주소국에서는 궁녀뿐이 아

니고 한개 나라 조정에 짝지지 않는 관리기구와 직제까지 즐비하게 두고서 천문을 따져가며 농사와 물고기잡이를 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말타기와 활쏘기, 창쓰기와 칼쓰기를 장려하는데다가 고을의 쌀을 대고 군사까지 두어서 자체의 방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있었다.

선대에도 그랬거니와 순식이 대에 와서도 명주는 여전히 서라벌이 함부로 이래라저래라하지 못하는 그런 일국의 위엄을 과시하고있었다.

이런 명주땅을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궁예에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진속은 어찌되었든 세상에 이런 웃음거리가 어디 있으랴 하는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봉창(여닫게 되어있지 않는 봉인한 창문)을 허벼보는 순식이였다.

그럴수록 순식은 부친의 처사가 한스럽기 그지없었다.

소시적에 사서삼경을 도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던 부친이였다. 그런데 나이 마흔에 무슨 도깨비에 홀리웠는지 불교에 입문한다, 명산대찰을 유람한다 하더니 쇠고개에 이르러서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말았다.

소문에는 가야산과 지리산의 누구와 명망높은 대사, 선사들과만 어울린다 하였는데 일전에 한번 날아오는 소문으로는 백계산 옥룡사의 도선대사와 어깨동이를 하고서 가보지 않는데 없이 팔방돌이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사람의 얼굴을 한번만 보고도 그의 명이 길고짧음을 즉시에 판단한다거니, 산자락의 생김새만 보고도 그 마을 운수를 대번에 진단한다거니 하는 좌우지간 귀신 씨나락 까는 소리같이 알아듣지도 못할 소문을 줄창 내며 다니는 부친이어서 남보기조차 거북하였던 순식인데 때아니게 불쑥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 중대가리에 애꾸눈인 궁예라는 날도깨비에게 조상 부끄러운줄 모르고 머리를 숙이라 하였으니 순식이 살다살다 이런 일을 당하리라 어찌 생각이나 하였을것이냐.

다행히도 명주땅의 주인은 여전하리라는 담보를 곁들였기마정이지 하마트면 조상의 땅을 송두리채 떼울번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순식은 한가지만은 알고있었다. 부친이 아주 미친것은 아니고 순식이 바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뭔가 앞날을 내다보고 당장의 부끄러움은 잠시 참고 이겨내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제자신이 태를 묻은 땅이고 제 살불이가 태를 물려가야 할 땅임을 알고서 혼시를 하는것만은 분명한지라 순식은 내키지 않는 요구를 들어준것이였다.

하면서도 순식은 한가지만은 오금을 박았다.

이후에 이 순식은 그 누구에게든 두번다시는 머리를 숙이지 않으리라는것이였다, 궁예에게 굴복하는것이 일생에 마지막 한번뿐이라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다바람을 등지고서 오대산 왼쪽너머로 삼사백리 가면 있다는 최두레쪽을 겨누고서 순식은 이윽도록 눈을 흘기며 서있었다.

(궁예 네가 고구려를 재건한다구? 없어진지 이백년도 넘은 나라를 네가 다시 세워? 삶은 소대가리가 다 웃겠다. ...)

코웃음을 짓던 순식의 입귀가 갑자기 이그러졌다.

(지금 이 땅이 뉘 땅인데 고구려타령인가? 서라벌도 귀를 막지는 않고있을터인데 감히 이 신라땅에 고구려를 다시 세우겠다 칼춤 추는 놈팽이를 가만두어?)

부릅뜬 그의 눈이 이번엔 남쪽의 서라벌쪽으로 겨누어졌다.

코막고 답답한것들이로구나. ...

순식은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지금껏 등지고있는 서라벌에 대고 이래라저래라 훈수를 틀기도 멧적은것이였기때문이었다. 그보다는 고구려를 다시 세운다는 놈팽이에게 《항복》까지 한 자기를 의식해서였다.

그 애꾸눈이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 할줄이야. ... 그런 속통머리인 놈인줄 알았으면 애초에 《항복》같은건 하지 않았을터인데...

순식은 쓴입을 다시며 돌아서고말았다.

고구려를 다시 세우겠다는 놈이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소귀신모양으로 죽었소 하고 코빼기를 숙이고있는 놈들이든 자기가 그들을 흥

불 계제가 못된다는데서였다.

(누가 어디서 무슨 작당을 하든 그건 내 알바 아니다. 어쨌든 이 명주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 이곳은 죽으나사나 이 순식의 령 지이고 김주원조상의 땅이다.)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든 자기 령지만은 끝까지 지키리라 다짐하며 순식은 말우에 올랐다. 수비군사들에게 몇마디 혼시하고 말고삐를 채였다. 고올로 내려가는것이였다. 누가 뭐라든 제 내키는대로 제나름의 길을 가는것이였다.

순식은 지금 이 시각에 부친인 허월대사가 쇠두레가 아니라 송악에, 더 정확히 말하면 부소압골안의 절(후날의 령통사)에 앉아서 궁예가 아닌 왕건에게 기대를 걸고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있는줄은 꿈에도 모르고있었다.

...

귀가 류달리 큰 하늘소 한마리가 마흔고개를 갓 넘긴듯싶은 나그네 하나를 등에 태우고서 디뚝디뚝 걸어가고있었다.

해는 중천에 떠있으나 뽀얀 운무속에 가리워 희뿌연 형체만 보일 뿐이고 그래서인지 한낮인데도 주위는 어둡시근한것이 영 정신이 들지 않는 날씨였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로 조는듯마는듯 두눈을 지르잡고앉아 가는 나그네 역시 심사가 그다지 편한 기색은 아닌것 같아보였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부사람 최치원이였다. 그는 열한살에 당나라에 류학갔고 열일곱살에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여 강남도 선주 툄수현의 현위로 임명되었으며 직무를 잘 감당하여 승무랑 시어사란 벼슬등급과 내봉공의 관직을 받았는가 하면 그 지역 농민폭동군을 진압하는 장수의 종사관노릇까지 하면서 이름을 날리였다. 그후 스물여덟살 되는 해인 885년에 신라로 돌아와 한림학사니, 병부시랑 지서서감이니 하는따위 벼슬자리를 두루 돌다가 조정대신들의 시기질투에 치워서 대산군(태산군이라고도 함.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부성군(충청남도 서산시), 천령군(경상남도 함양) 태수로 밀리다가 894년

2월엔 정사를 바로잡는답시고 10여개 조의 시정의견서를 제기하고 아찬의 벼슬등급에 올라 다시한번 조정에 몸을 잠그었다가 모든것이 귀찮다며 제스스로 초야에 몸을 물어버린 사람이였다.

누구나 쉬이 차례지지 않는 공부길이고 쉬이 누릴수 없는 벼슬길을 애젊은 나이때부터 걸어볼대로 걸어보고 부귀와 명예도 누려볼대로 다 누려보아 이제는 더 바랄것이 없어 대궐을 나섰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는지도 몰라 저리 말해두는데 이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제가 나서 태를 묻은 고향을 흠이 좀 있다 해서 나무랄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한 나라의 정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인데 그렇게 생각 없이 외면해버릴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것이다.

배운것, 겪은것이 보통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 사람이 그 학문과 그 경륜, 그 지체를 다 버리고 조정과 등을 진채 고향길에, 아니 구체적으로는 방랑길에 오른 그 속내인즉은 세상만사가 도저히 제 뜻대로 되지 않는데 허무감을 금할수가 없어 그리하였다는 그것인것이다. 꼬집어 말하면 기울어져가는 신라조정에 대한 환멸이고 자기 힘으로는 조정을 바로잡을수 없다는 패배감이 그 원인이라는 소리였다.

현강왕에 정강왕, 진성너왕에 이르기까지 임금님네들밑에서 일해본즉은 그리고 지금의 효공왕까지 넘겨본즉은 아닌 말로 어느 하나 비루먹은 강아지 한가지로 도저히 구실을 바로하는 임금님이 없다는게 그의 견해였다.

비온 뒤 대순 돌듯 도처에서 솟아오르는, 나라님네들 말로 하면 《반란의 무리》들인 농민폭동군들이 이 나라의 천년사직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는데도 어느 임금 하나 이를 바로잡을 궁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울상이 되어 절절매기만 할뿐이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제가 궁냥을 못할것 같으면 신하들의 진언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텐데 그 일도 바로 못하는것이였다. 보다못해 뭘 좀 상주할라 하면 간신이요, 역적이요 별의별 루명을 다 뒤집어써워 목자르려드느니라 눈뜨고 그 꼴 보느니 차라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는게 상

책이다 하고 돌아서고만것이였다.

인걸이 인걸을 알아본다 하였으되 내 그만하면 나라 하나쯤 거두는 일은 힘들이지 않고 도울수 있는 몸인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 더 상종해 무엇 하랴, 그쫘하고 물러나와 산수풍경이나 돌아보며 기분을 가라앉히자,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제 말대로 하면 유람길에 오른것이였다.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스님들과 말동무하며 지낸다는 형이나 한번 만나볼까. 거기 가면 이전에 낫을 익힌 정현스님이 계시겠다. 참, 그가 도선대사와도 련계가 있는 사람이니 혹여 그한테서 도선의 행처를 알수 있으려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최치원의 뇌리에 문득 도선과 처음 만나던 때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885년 신라 헌강왕시절 당나라에서 돌아와 조정문턱을 넘어서자 제일먼저 눈에 띄운것이 도선이였다. 자기보다 한해 먼저 조정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도선이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었다. 둘은 이내 친숙해졌는데 그것은 서로가 말이 통하고 글이 통해서였다.

둘 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한가지로 서로 통하였으니 대화의 초점은 지금의 란세를 바로잡는 길은 똑바른 인재를 골라서 키워야 한다는 것과 그가 란세를 바로잡아나가도록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시작은 늘 최치원이 먼저 떼군 하였는데 그의 견해를 요약해보면 이러하였다.

이 세상은 음과 양의 두 실체가 고르롭게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음과 양의 두 실체는 구체적으로 보면 수화목금토 즉 오행이다. 사람의 마음은 물, 불, 나무, 쇠, 흙과 같은 자연의 다섯가지 물질을 가려볼줄 아는데서 생기는데 이를 제 마음대로 다룰줄 아는 것이 인재요 바로 이 인재를 찾아서 내세우는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근본리치이다.

도선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밝고 어두운 음양에 수화목금토 오행이 조화를 이룬것이 사람사

는 이 땅인데 인재가 나는 곳은 제한되어있는바 내가 그 인재가 나서 흥하는 지맥과 지혈을 알고있으니 송악과 평양성이 바로 그곳이다.

최치원은 그때 자기는 실체를 우선 인정한다고 주장하였고 도선은 그 실체는 자연의 조화속에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인재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둘은 견해가 일치했고 당시로서는 자기들의 눈에 차는 인재가 아직은 없다는데로 결론이 났었다.

당대에 찾아보다 안되면 다음대에 가서라도 인재는 나질것이니 세상에 몸담고 언제까지건 찾아보자는것이 둘의 견해였다. 세해를 넘기지 못하고 도선은 조정대궐을 떠나갔지만(그사이 최치원도 조정의 세파에 밀리워 지방관리로 전전했다.) 그가 지금쯤 어디서건 그토록 애타게 바라고바라던 지모가 갖춰진 인재를 찾아냈을지도 모른다고 최치원은 생각했다.

(그래, 도선을 만나보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떠난 길이었다.

최치원은 고삐를 툭툭 채며 하늘소를 독촉했다.

가야산 해인사로 먼저 가보려는것이였다.

최치원은 해인사에서 줄을 밟아 다음해인 899년초에 드디어 도선이 은거해있는 백계산 옥룡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도선이 죽은지 얼마 되지 않는 때였다. 거기서 도선의 제자 운암으로부터 그사이에 도선이 송악에서 기대되는 인물을 하나 골라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최치원은 송악의 인물이라는 왕건을 눈여겨보면서 그의 활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것을 유일한 락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를 넘기기를 십년 하고도 또 십년째 되는 해에 그사이에 새로 사귄 또 하나의 재사 최언위를 알게 된 뒤에는 그더러 자기대신 송악에 가서 왕건을 도우라고 부탁까지 하였다. 마침 그때가 바로 왕건에 의해 고려국이 금방 일어선 때였다.

최언위는 최치원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이미전부터 왕건을 찾아가려 하였던 참인지라 기꺼이 송악으로 가서 왕건의 수하에 들었다.

그는 왕건의 밑에서 문서일반을 도맡아보았을뿐만아니라 많은 대외 적문제들에서 요긴한 조언을 주어 고려의 부흥에 이바지하였다. 말년에는 박술희와 함께 태자의 사부로 있으면서 고려조정외 대물림에도 헌신하였다.

고려국이 선 다음부터 왕건의 모사로 활약한 최지몽도 최치원이 끌어서 보내주었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력사에는 최치원이 왕건에 대해 관심이 컸고 시종 그를 지지하는 립장에 서있었다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기록되어있다.

3. 자웅을 다투다

무오년인 898년 봄 어느날, 이날 송악고을은 아침부터 술렁거리었다. 궁예가 앞으로 나라를 세울 도읍지로 내정한 이 송악성으로 순행을 오는것이였다.

송악성(력사기록에는 발어참성으로 되어있다.)은 이해 2월에 완공되였다. 오늘은 왕건이 부친과 함께 궁예에게 송악성을 새 나라의 도읍지로 꾸려놓겠다고 약속한 때로부터 꼭 세해가 되는 날이였다.

세해전인 을묘년에 왕건의 부친 룡건은 송악고을을 궁예에게 통채로 바치면서 그의 부하가 되기를 자청하였었다. 다른 령주들처럼 본래의 지위를 담보하는 조건하에서의 복속이 아니라 완전히 바치는것이였다. 대신 그는 아들 왕건이 성을 쌓을 때까지 성주로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처분은 궁예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다. 그때 궁예는 송악일대가 손쉽게 장악되는것을 기뻐하면서도 그의 터세가 두려워 룡건을 송악과는 거리가 먼 북한강 상류쪽의 금성(김화)태수로 임명하였다.

하여 룡건은 한적한 산골고을에 가있다가 1년만에 세상을 하직하